

# 『源氏物語』에 나타난 光源氏の 사랑과 여름의 의미

이상경\*

lsg@duksung.ac.kr

## Contents

1. 서론
2. 사랑의 두려움과 무더운 여름
3. 자손의 번영과 우거진 녹음
4. 사랑의 슬픔과 쏟아지는 비
5. 결론

## Abstract

本稿では光源氏の母桐壺更衣が亡くなった「夏」に注目し、『源氏物語』の前篇41巻のうち、24巻に描かれた「夏」の内容について検討した。そして特に、更衣に似た藤壺、更衣の血筋につながる明石君、さらに藤壺に似て血筋にもつながる紫上等の、桐壺更衣との関連から登場した女性たちが、光源氏の生と愛に深く関わりながら、更衣のなくなった「夏」の意味を形成していることを見出した。整理すると次のようになる。

「若紫」「紅葉賀」「若菜下」「鈴虫」へと続く「夏」は、光源氏が母更衣に似た藤壺を愛するようになることから始まる。桐壺帝を裏切った光源氏と藤壺は恐ろしさに震え、そして事実を知った冷泉帝によって光源氏は改めてその恐ろしさを自覚するようになり、さらに女三宮と柏木の恐れを通じて光源氏は己れ自身の罪深さを直視し自分の行為を反省するに至る。そしてついに、女三宮の持仏開眼供養と生活を世話しながら蓮の花咲く「阿弥陀如来の浄土」へと導かれる。母更衣に似た藤壺との愛は、結果的に光源氏を浄土の世界に導くことで、母更衣の亡くなった「夏」の意味の一部につながるのである。

「明石」「落標」「藤裏葉」「若菜上」「御法」へと続く「夏」は、桐壺更衣の従兄で家の榮華回復という、更衣と同じ宿世を持つ明石入道の登場によって始まる。そして入道の計らいにより光源氏はその娘明石君に求婚するようになる。それに続く明石君の妊娠と生まれた姫君の入内、明石女御が桐壺御方と呼ばれながら懐妊して実家の六条院に来て安らぐ等、明石一家の宿世は勿論、桐壺更衣一家の宿世もまた「夏」を通して成就される。多くの皇子皇女の母となり安定した明石中宮の姿は、緑陰の茂るとき子孫の繁榮を期待した明石入道の念願が叶ったものであり、「夏」に亡くなった桐壺更衣の意志につながるものでもある。

紫上もまた「葵」「藤裏葉」「若菜上」「若菜下」「鈴虫」「御法」「幻」の「夏」と深く関

\* 덕성여자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일본중고문학.

わるが、特に葵祭の描かれる「葵」「藤裏葉」「若菜下」「幻」の「夏」は、紫上の人生の大事な事件の起る季節である。「葵」では隠されたまま光源氏とともに葵祭に出かけた紫上が、「藤裏葉」では光源氏の夫人としての威勢を誇りながら葵祭に出かけるに至る。そして「若菜下」では病から甦り、自分亡きあとの光源氏を心配しながら光源氏との因縁を再確認するようになる。このように「夏」の葵祭を背景に、紫上と光源氏の育んできた絆が明確になる。「幻」の葵祭も過ぎた「夏」、光源氏は紫上を偲んで降り注ぐ雨のように、涙を流すようになる。母更衣の亡くなった夏、泣いたことのない光源氏は、この夏、紫上を偲んで泣くようになるのである。紫上を偲ぶこの「夏」がまるで母更衣の亡くなった「夏」につながるかのようである。

このように『源氏物語』の「夏」は、桐壺更衣との繋がりの上で登場する藤壺、明石君、紫上の生の重要な諸事件や出来事を妙につなぎ会わせる鎖のように働きつつ、光源氏の母更衣の亡くなったあの「夏」にすべて通じているのである。「夏」という背景の設定は、決して偶然ではなく、光源氏の人生において、とりわけその愛の展開において、看過できない一つの文学的意味を持っていたのである。

Key Words : 夏、恐ろしさ、繁榮、悲しみ、因縁

## 1. 서론

『源氏物語』의 첫 卷인 「桐壺」에는 光源氏の 어머니인 桐壺更衣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 묘사된다. 그 장면은 ‘그해 여름, 부인은 왠지 건강이 나빠져서(その年の夏、御息所、はかなき心地にわづらひて)’(一, p.97)<sup>1)</sup>라는 말로 시작된다. 여기에 여름이라는 계절이 그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다. 光源氏の 어머니가 죽은 이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은 『源氏物語』에서 처음으로 묘사되는 계절이며, 세살의 어린나이에 光源氏が 어머니를 여의는 운명적으로 슬픈 계절이 된다.

『源氏物語』의 집필 순서가 「桐壺」가 아닌 「若紫」에서부터 시작되어, 「桐壺」는 「少女」 다음인 21번째쯤에 집필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의견<sup>2)</sup> 등을 참고로 한

1) 원문은 모두 『源氏物語』日本古典文学全集, 小学館에 의한다.

2) 阿部秋夫는 『源氏物語』의 집필 순서에 대해서 이전의 「須磨」설과 池田龜鑑의 「若紫」설 등을 언급하면서, 「桐壺」가 「若紫」「紅葉賀」「花宴」「葵」「賢木」「花散里」「須磨」「帚木」「空蟬」「夕顔」「未摘花」「明石」「落標」「蓬生」「閨屋」「絵合」「松風」「薄雲」「朝顔」「少女」 다음쯤에 집필되었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더욱더 桐壺更衣의 사망하는 계절을 ‘여름’으로 한 점, 그리고 이것이 『源氏物語』에서 처음으로 표현되는 계절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면, 前篇의 중간쯤에 집필된 『桐壺』에서 桐壺更衣가 세상을 떠나는 슬픈 계절을 굳이 ‘가을’이 아닌 ‘여름’으로 한 의미를 주목하게 된다. 『古今集』등에서 이미 가을이 ‘슬픈 계절’로 규정되고, 更衣를 잃은 桐壺帝의 슬픔이 ‘가을’을 통해 더없이 슬픈 것으로 묘사되는 등, 『源氏物語』의 가을 또한 슬픈 계절로 묘사되는 것을 참고한다면, 『桐壺』에서 桐壺更衣가 죽은 계절을 ‘여름’으로 한 인위적인 의미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源氏物語』에서 가장 먼저 집필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若紫』의 ‘여름’에는 자신들을 가장 사랑해 주는 桐壺帝를 배신한 光源氏와 藤壺가 각각 桐壺帝를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다. 더운 ‘여름’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마음이 싸늘해질 만큼 부적절한 사랑에 따른 ‘두려움(恐ろしう)’으로 고뇌하는 모습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源氏物語』를 현재의 구성 순서대로 본다면, 『若紫』의 ‘여름’은 세살의 어린나이에 어머니를 여윈 光源氏의 슬픔이 근원이 되어 桐壺更衣를 닮은 藤壺를 그리워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서 光源氏의 사랑이 ‘두려움’ 만큼의 비극으로 진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된다.

光源氏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죽은 어머니 桐壺更衣에 대한 그리움을 근원으로 하고 있지만, 桐壺更衣를 닮은 藤壺, 桐壺更衣와 같은 혈통인 明石君, 그리고 藤壺를 닮고 혈통도 같은 紫上 등, 桐壺更衣와 연결되는 인물들을 대상으로 구체화된다. 이러한 구체화는 결코 단순한 우연으로 상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름’을 배경으로 하는 결정적인 주요 사건들을 통해 내적으로 서로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드러난다. 본 논문에서는 『源氏物語』에서 처음으로 묘사되는 계절이며 光源氏의 어머니가 죽은 계절인 그 ‘여름’에 주목하면서, 『源氏物語』 前篇 41권 중 24권에 묘사된 여름의 내용들(여름에 일어난 일들)을 중심으로 핵심적 여인들에 대한 光源氏의 운명적인 사랑과 그것에 관련된 여름의 의미에 대해서 분석 고찰하여, 光源氏의 사랑과 삶이 자연과 연관되는 모습을 보다 명확히 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고 생각하게 된다. ((1982,3) 『源氏物語執筆の順序』 『源氏物語(1)成立論構想論』 国文学解釈と鑑賞別冊、至文堂、p.165)

## 2. 사랑의 두려움과 무더운 여름

光源氏の 어머니인 桐壺更衣가 죽은 그 ‘여름’ 이후, 『源氏物語』의 여름의 더위를 배경으로 한 문장을 살펴보면, 「帚木」, 「空蟬」, 「夕顔」<sup>3)</sup> 등의 光源氏의 호기심에서 비롯되는 사랑과 달리, 「若紫」에서는 光源氏와 藤壺가 密通에 의한 임신으로 ‘두려움(恐ろし)’을 느끼며 깊이 고뇌하는 모습이 묘사되기 시작한다.

『源氏物語』에서 두려움이 들어가는 단어는 전체의 129곳에 나타나고 있다. 그 중 前篇에 나타나있는 62곳을 보면, 봄의 계절에 27, 여름의 계절에 13, 가을의 계절에 18, 겨울의 계절에 4곳 등이 된다. 따라서 ‘여름’의 계절에 ‘두려움’이 몰려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여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帚木」의 2곳을 제외한 「若紫」의 2곳과 「紅葉賀」의 1곳에 나타난 光源氏와 藤壺의 두려움, 「薄雲」 4곳의 冷泉帝와 僧都의 두려움에 대한 인식, 「若菜下」 4곳에 나타난 女三宮와 柏木の 두려움, 그리고 光源氏가 상기하는 지난날의 두려움 등, ‘여름’의 11곳에는 密通과 관련된 ‘두려움’으로 이야기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若紫」의 光源氏와 藤壺가 고뇌하며 두려워하는 장면을 보기로 하자.

藤壺는 건강이 좋지 않아 사가로 가셨다. …光源氏는 하고 싶은 무슨 말을 다 하겠는가. 밤이 새는 것을 모르는 어둠의 산에 머물고 싶겠지만, 안타깝게도 여름 밤이 짧으니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게 낫다. …(光源氏는) 집에 오셔서 울다 자며 누워 지내셨다. …궁궐에도 가지 않고 이삼일 집안에만 있으니까 또 무슨 일이 있는냐고 (桐壺帝께서) 틀림없이 걱정하실 것도 같아 (光源氏는) 지은 죄를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신다. …藤壺도 정말 아주 한심한 몸이라며 한탄하여 병도 깊어졌다. 빨리 입궐하라는 사자가 끊임없이 오지만, 결심이 서질 않는다. 정말 기분이 평소와 다른 이유를 생각해봐도 남 몰래 잡히는 데가 있고 보니 괴롭고 어떻게 되는 건지 고민만 는다. 더울 때는 아예 일어나지도 않으신다. (임신) 석 달이 되어 정말 확실히 알 수 있을 때여서 남들이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여 묻는 것이, 뜻하지도

3) 「夕顔」의 전반부는 光源氏의 夕顔에 대한 호기심이 묘사되다가, 중반부 이후에는 계절을 ‘가을’로 하면서 夕顔가 모노노케(物の怪)를 두려워하다 죽게 되는 과정과 그 후의 일이 묘사되고 있다. 여기에도 ‘두려움(恐ろしう)’이라는 단어가 8군데 나오는데, 모두가 다 夕顔의 성품과 환경을 묘사하는 것으로 쓰여 있는 것이 특징이다.

얇은 숙세가 한심하게 생각된다. …(桐壺帝가) 한층 사랑스럽고 한없이 마음이 쓰여서 문안의 사자 등을 끊임없이 보내는 것도 아주 두렵고 고민이 끝이 없다(藤壺の宮、なやみたまふことありて、まかでたまへり。…何ごとをかか聞こえつくしたまはむ。くらぶの山に宿も取らまほしげなれど、あやになる短夜にて、あさましうなかなかなり。…殿におはして、泣き寝に臥し暮らしたまひつ。…内裏へも参らで、二三日籠りおはすれば、また、いかなるにかと、御心動かせたまふべかめるも、恐ろしうのみおぼえたまふ。…宮も、なほいと心うき身なりけり、と思し嘆くに、なやましきままさりたまひて、とく参りたまふべき御使しきれど、思しも立たず。まことに御心地例のやうにもおはしまさぬは、いかなるにかと、人知れず思すこともありければ、心うく、いかならむとのみ思し乱る。暑きほどはいとど起きも上がりたまはず。三月になりたまへば、いとしるきほどにて、人々見たてまつりとがむるに、あさましき御宿世のほど心うし。…いとどあはれに限りなう思されて、御使などのひまなきもそら恐ろしう、ものを思すこと隙なし)。

(一, 『若紫』, pp.305~308)<sup>4)</sup>

위는 光源氏와 藤壺의 密通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묘사되기 시작하는 문장이다. ‘봄’에 僧都의 설교를 듣던 光源氏が ‘내 죄가 두렵구나, 어쩔 수 없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있는 한 이것을 고민해야 되겠지. 게다가 후세에도 괴롭겠지.(わが罪のほど恐ろしう、あぢきなきことに心をしめて、生けるかぎりこれを思ひなやむべきなめり、まして後の世のいみじかるべき)’(一, p.286)라며 자신의 죄를 두려워하는 장면으로 암시되던 光源氏와 藤壺의 관계가 이 ‘여름’ 구체적으로 묘사되기 시작한다. 光源氏は 사가로 간 藤壺를 어렵게 찾아가는 것이다. 그리고는 ‘짧은 여름밤’을 한탄하고, 돌아와서도 光源氏は ‘올다 자며 누워 지내는’ 것으로 마음의 애절함과 안타까움의 깊이를 표현하고 있다. 그 반면에 아버지인 桐壺帝를 생각하며 光源氏は 자신의 지은 죄를 ‘두려운 일(恐ろしう)’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이것은 光源氏が 夕顔의 죽음을 ‘으스스함(むくむくしき)’(一, 『夕顔』 p.242), ‘섬뜩함(ものむつかしき)’(一, 『夕顔』 p.252) 등으로 인식하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藤壺 역시 자신을 ‘한심하게(心うし)’ 생각하며 ‘더울 때는 일어나지도 않고’ 남편인 桐壺帝가 자신을 위해주는 것을 ‘두렵게(そら

4) 원문의 한글 번역은 모두 논자의 번역에 의함.

恐ろしう)<sup>5)</sup> 생각하며 고뇌한다. 여름의 더위 속에서 光源氏와 藤壺는 桐壺帝를 의식하면서 각자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키워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은 皇子의 탄생으로 절정에 달하게 된다. 『紅葉賀』의 여름 4월에는 2월에 낳은 皇子를 데리고 藤壺가 입궐하여, 桐壺帝가 처음으로 皇子를 보는 장면이 전개된다. 光源氏를 닮은 皇子를 桐壺帝가 처음 보는 계절이 ‘여름’이 되는 것이다.

(皇子는)사월에 입궐하였다. …두려울 만큼 (光源氏를) 닮은 얼굴을 (桐壺帝도) 생각지도 못하던 일이기에, 뛰어난 사람들끼리는 정말로 닮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더없이 아주 소중히 키우신다. 光源氏를 한없이 소중하게 생각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승낙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동궁으로 하지 못했었던 것이 항상 억울하고, 평민으로는 아까운 모습이며 얼굴 생김새 등을 보면서 괴롭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고귀한 어머니에게서 (光源氏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사람이 태어났기에 (桐壺帝는) 흠 없는 옥으로 생각하여 소중히 키우시니, (藤壺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게 생각하신다. …光源氏는 얼굴색이 변하는 느낌이 들어 무섭고 황송하고 기쁘고 슬프고 여러 가지로 감정이 바뀌는 느낌이 들어 눈물이 흘러버릴 것 같다.(四月に内裏へ参りたまふ。…あさましきまで、紛れどころなき御顔つきを、思しよらぬことにしあれば、また並びなきどちは、げに通ひたまへるにこそは、と思ほしけり。いみじう思ほしかしづくこと限りなし。源氏の君を限りなきものに思しめしながら世の人のゆるしきこゆまじかりしによりて、坊にも据ゑたてまつらずなりにしを、あかず口惜しう、ただ人にてかたづけなき御ありさま容貌にねびもておはするを御覧ずるままに、心苦しく思しめすを、かうやむごとなき御腹に、同じ光にてさし出でたまへれば、瑾なき玉と思しかしづくに、宮はいかなるにつけても、胸の隙なく、やすからずものを思ほす。…中将の君、面の色かはる心地して、恐ろしうも、かたじけなくも、うれしくも、あはれにも、かたがたうつろふ心地して、涙落ちぬべし。) (一, 『紅葉賀』, pp.398, 400~401)

桐壺帝는 자신을 배신한 증거가 될 수 있는 皇子를 보면서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뛰어난 사람들끼리는 정말로 닮는 것이라

5) 増田繁夫는 『そら恐ろしう』의 두려워하는 대상은 ‘사건 그 자체나 자기의 행동 등’이 아니라 ‘남의 눈이나 세상’이라고 한정한다. ((1999) 『光源氏の古代性と近代性』 『源氏物語研究集成』 第一巻, p.328)

고 생각'하여 光源氏를 東宮으로 하지 못했던 억울함을 풀 생각으로 소중히 키운다. 藤壺에게는 불안이, 光源氏에게는 아버지 桐壺帝의 사랑이 확인될수록 죄의식 때문에 桐壺帝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커져 간다. '얼굴색이 변하는 느낌이 들어'처럼 光源氏는 변하는 얼굴색만큼이나 마음속까지 뜨거워진다. 光源氏 19세의 이 '여름'은 이러한 '뜨거움'과 '두려움'으로 桐壺帝를 의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藤壺가 불안해하는 것은 桐壺院의 崩御 후 東宮의 장래를 위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선명하게 표현되고 있다.

아직도 (光源氏의) 안 되는 마음이 멈추질 않아 (藤壺는) 자칫 가슴이 무너질 듯하시면서 (桐壺院이) 조금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셨던 것을 생각하는 것조차 너무 두려운데, 이제 와서 다시 그와 같은 소문이 일어나면, 내 몸이야 어찌 되어도 좋지만, 동궁에게는 틀림없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몹시 두려워서 기도까지 시키면서 (光源氏의) 마음을 단념시키려고 여러 방법을 다 생각해서 피했는데, 어떤 틈이 있었을까, 뜻하지도 않게 숨어들어 오셨다. ...정말 이렇게까지 닳아 있는 것은 괴로운 일이라고, 옥의 티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세상이 성가신 것을 두렵게 생각하시기 때문이다.(なほこのにくき御心のやまぬに、ともすれば御胸をつぶしたまひつつ、いささかもけしきを御覧じ知らずなりにしを思ふだに、いと恐ろしきに、今さらにまたさる事の聞こえありて、わが身はさるものにて、春宮の御ために必ずよからぬこと出で来なんと思すに、いと恐ろしければ、御祈禱をさへせさせて、このこと思ひやませたてまつらむと、思しいたらぬ事なくのがれたまふを、いかなるをりにかありけん、あさましうて近づき参りたまへり。...いとかうしもおぼえたまへるこそ心うけれと、玉の暇に思さるるも、世のわづらはしさのそら恐ろしうおぼえたまふなりけり。) (二, 『賢木』 pp.99, 100, 108)

『賢木』의 '봄' 3곳에 나타난 藤壺의 '두려움'을 보면 藤壺가 지금까지 불안해 하던 실체를 알 수 있다. 하나는 죽은 桐壺院이 자신의 密通을 끝까지 몰랐다고 하는 사실<sup>6)</sup>에 대한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다시 소문이 나서 東宮에게까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東宮이 光源氏를 닳아 세

6) 高橋和夫는 '왕비의 密通이 공공연한 비밀이어도 왕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 그것이 '왕권의 保証'이 되는 것이며, 物語의 '암묵의 규칙'이 된다고 지적한다. ((1999) 『桐壺卷の主題』 『源氏物語研究集成』第一卷, p.43)

상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될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藤壺는 桐壺院에 대한 죄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식인 東宮의 앞날이 더 걱정되는 것이고, 아직도 변치 않는 光源氏의 마음과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하면서 또 역시 東宮의 장래를 생각하는 어머니가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19세의 光源氏가 ‘뜨거움’과 ‘두려움’으로 桐壺帝를 의식하는 『紅葉賀』의 ‘여름’, 藤壺는 桐壺帝를 의식하는 두려움만이 아니라, 이미 皇子의 장래를 걱정하는 어머니로서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光源氏와 藤壺의 마음의 차이는 『須磨』의 ‘봄’에서 光源氏가 須磨로 떠나기 전에 출가한 藤壺를 찾아가서 ‘하늘(을 보는 것)도 두렵다(空も恐ろしくはべる)’(二, p.171)고 말하는 장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藤壺는 ‘남편은 없고 산 분은 슬프게 된 마지막이니 출가한 보람 없어 울면서 지내노라(見しはなくあるは悲しき世のはてを背きしかひもなくなくぞ経る)’(二, p.172)라며, 光源氏에게 東宮의 후견을 바란 보람이 없어진 것을 슬퍼하고 있는 것이다.

藤壺가 皇子를 데리고 입궐하던 『紅葉賀』의 ‘여름’ 이후, 藤壺는 죄의식보다 더욱 강한 어머니로서의 마음이 확실하게 표현되는 것에 비해, 19세의 光源氏에게는 아버지 桐壺帝의 사랑을 확인하는 한편으로 아버지 桐壺帝에 대한 ‘두려움’만이 더 커지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薄雲』에 나타난 光源氏 32살의 여름, 藤壺의 사망 49일제를 계기로 冷泉帝는 僧都에게서 자신의 친아버지가 光源氏라는 사실은 듣게 된다. 여기에는 冷泉帝도 光源氏와 藤壺의 관계를 ‘두려운’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나타나 있다.

‘정말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오히려 죄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어 꺼려지는 일이 많지만, 알고 계시지 않으면 죄가 무겁고 하늘이 보시기에도 두렵게 생각되는 일을, 마음속으로 탄식하며 수명이 다한다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 …자세히 말씀드리시는 것을 들으시니 (冷泉帝는) 더 없이 놀랄만한 일로 두렵기도 슬프기도 여러 가지로 마음이 혼란스럽다. … ‘정말로 두렵습니다. 천번이 끊임없이 계시하고 세상이 조용하지 않은 것은 이 때문입니다. …(帝께서) 무슨 죄인지도 모르는 것이 두려워서…’ …현명한 사람(光源氏)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지만,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들으셨다고는 생각지도 못하신다(『いと奏しがたく、かへりては罪にもやまかり當らむと思ひたまへ憚る方多かれど、知ろしめさぬに罪重くて、天の



眼恐ろしく思ひたまへらるることを、心にむせびはべりつつ命終りはべりなば、何の益かははべらむ。…」…くはしく奏するを聞こしめすに、あさましうめづらかにて、恐ろしうも悲しうも、さまざまに御心乱れたり。「…いと恐ろしうはべる。天変頻りにさとし、世の中静かならぬはこの気なり。…何の罪とも知らしめさぬが恐ろしきにより…」…かしこき人の御目にはあやしと見たてまつりたまへど、いとかくさださだと聞こしめしたらむとは思さざりけり) (二, 『薄雲』, pp.439~445)

僧都는 冷泉帝에게 ‘알고 계시지 않으면 죄가 무겁고 하늘이 보시기에도 두렵게 생각되는 일’이라며 말하기 시작한다. 僧都는 冷泉帝에게 아버지를 신하로 두는 불효가 두려운 일이라고 말한다. 僧都의 이야기를 들은 冷泉帝는 光源氏와 藤壺의 관계 그 자체가 ‘더 없이 놀랄만한 일’이 되며 두려움과 슬픔이 교차한다. 그리고 光源氏에게 양위를 제안하게 된다. 冷泉帝는 僧都가 말하는 불효의 해결책으로 양위를 제안하게 되는 것이다. 僧都는 불효의 두려움을 3번에 걸쳐서 반복한다. 冷泉帝는 양위 제안을 고사한 光源氏에게 40세의 축하를 앞두고 准太上天皇의 지위를 주면서도 양위하지 못한 것을 탄식할 정도이다. 僧都의 역할로 冷泉帝는 光源氏와 藤壺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양위 제안이라는 방법으로 마음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光源氏의 입장에서 보면 『薄雲』 ‘가을’의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いとまばゆく恐ろしう思して)’(二, p.446)처럼, 冷泉帝를 통해 사실의 두려움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若菜下』의 ‘여름’에 나타나는 女三宮와 柏木の 두려움, 그리고 光源氏의 두려움이 연결되는 장면을 보기로 하자.

女三宮는 아무 생각 없이 잠자고 있었는데 가까이에서 남자의 기척이 나기에 光源氏가 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겨우 눈을 떠보니 다른 사람이었다. …부들부들 떠는 모습, 물처럼 땀도 흘러 기절할 것 같은 얼굴 색…이 사람(柏木)이었구나 라고 생각되자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아무런 대답도 못하신다. …나(柏木)는 큰 잘못을 저지른 몸이구나. 세상살이가 힘들어지는구나. 라며 두렵고 창피해서 외출도 못한다. …(光源氏가) 노려보는 일이 있다면 너무 두렵고 창피할 거라고 생각한다. …‘돌아가신 아버지 桐壺院도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알고 계시면서 모르는 척 하고 계셨던 것일까. 생각해보면 그때의 일은 몹시 두렵고 있어서는 안 될 잘못

이었다'라며 가까운 자신의 전례를 생각하면서 사랑의 깊은 산은 비탄할 수 없다는 마음도 든다.(宮は、何心もなく大殿籠りにけるを、近く男のけはひのすれば、院のおはすると思したるに、…せめて見あけたまへれば、あらぬ人なりけり。…わななきたまふさま、水のやうに汗も流れて、ものもおぼえたまはぬ氣色、…この人なりけり、と思すに、いとめざましく恐ろしくて、つゆ答へもしたまはず。…いみじき過ちしつる身かな、世にあらむことこそまばゆくなりぬれ、と恐ろしくそら恥づかしき心地して、歩きなどもしたまはず。…この院に目をそばめられたてまつらむことは、いと恐ろしく恥づかしくおぼゆ。…『故院の上も、かく、御心には知ろしめしてや、知らず顔をつくらせたまひけむ。思へば、その世の事こそは、いと恐ろしくあるまじき過ちなりけれ』と、近き例を思すにぞ、恋の山路はえもどくまじき御心まじりける。) (四, 『若菜下』, pp.215, 216, 220, 221, 245)

女三宮는 光源氏인 줄 알았던 남자가 다른 사람인 것을 알고는 부들부들 떨며 물처럼 땀이 흐른다. '여름'의 계절에, 女三宮는 떨며 식은땀을 흘리는 것이다. 여름의 더위 속에서 놀라 공포에 질린 女三宮의 모습이 부각되는 장면이다. 게다가 그 남자가 柏木인 것을 알자 女三宮는 더욱 놀라 두려움까지 느끼게 되고 있다. 그 남자가 光源氏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女三宮는 부들부들 떨리고 식은땀이 흐르는데, 그 남자가 언니 女二宮의 남편이며, 光源氏의 아들 夕霧의 친구인 柏木라는 사실에 기가 막히고 光源氏가 두려워진다. 그리고 이러한 女三宮의 놀라움과 두려움은 이전의 光源氏와 藤壺의 두려움의 깊이를 재삼 확인시켜준다.

柏木는 지은 죄를 의식하며 '세상살이가 힘들어진 것'과 光源氏가 '노려보는 일이 생길 것'을 두려워하고 창피해한다. 지은 죄를 생각하는 柏木는 이미 세상살이가 힘든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光源氏가 노려보는 일'도 예상하며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 柏木에게 겨울의 試樂하는 자리에서 光源氏가 “'거꾸로 가지 않는 세월이지요. 늙음은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라며 지켜보신다(『さかさまに行かぬ年月よ。老は、えのがれぬわざなり』とてうち見やりたまふ)(四, 『若菜下』 p.270)처럼 노려보는, 柏木가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결국 光源氏가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눈치 챈 柏木가 마음 약해져서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이 '여름'에는 桐壺帝가 사실을 알게 될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桐壺帝가

모르는 것으로 알던 光源氏를 대신해서, 光源氏에게는 일어나지 않은 두려워하던 현실이, 자신의 죄로 인한 두려움과 창피함을 느끼는 柏木の 마음을 통해서 투영되는 것이다.

뒤를 이어 光源氏가 인과응보적인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몹시 두렵고 있어서는 안 될 잘못이었다고 깊이 깨닫고 반성하는 장면이 묘사된다. 이곳의 光源氏는 桐壺帝가 자신의 배신을 알게 될 것을 두려워하던 이전과 달리, 지금은 자신을 돌아보며 이미 桐壺帝가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을 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당시의 자신의 密通 그 자체가 아주 두렵고 있어서는 안 될 잘못이었다고 인정하며 반성하게 된다. 光源氏는 이제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을 아버지 桐壺帝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의 깊은 산은 비난할 수 없다는 마음도 든다’처럼, 光源氏는 女三宮의 잘못에 대해서도 집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若菜下』의 ‘여름’에 나타난 女三宮와 柏木の 두려움의 결과는 『柏木』의 ‘봄’에 깊은 고민으로 병약해진 柏木가 女三宮의 출산과 출가의 이야기를 듣고는 사실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의 한탄과 슬픔 속에서 이윽고 ‘거품이 사라지듯이 숨을 거두(泡の消え入るやうにて亡せたまひぬ)’ (四, p.308)게 되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이 ‘봄’에 柏木가 사망하기까지의 女三宮와 柏木, 그리고 光源氏의 ‘두려운’ 마음을 읽어보자.

(女三宮의) 성격이 강하고 집착한 것은 아니지만 光源氏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가 있어서 아주 두렵고 괴롭게 느껴지는 것이겠지... ‘아아 밍구나. 내(柏木) 몸은 죄가 깊구나. 陀羅尼를 소리 높여 읽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드디어 죽어버릴 것만 같다’ ... ‘...참으로 이상한 일이구나. 내(光源氏)가 평생 두렵다고 생각한 일의 응보이겠지. 이승에서 이처럼 뜻하지도 않게 응보를 만났으니, 후세의 죄도 조금은 가벼워졌을까(御心本性の、強くづしやかなるにはあらねど、恥づかしげなる人の御気色のをりをりにまほならぬがいと恐ろしうわびしきなるべし。... 『いであな憎や。罪の深き身にやあらむ、陀羅尼の声高きはいとけ恐ろしくて、いよいよ死ぬべくこそおほゆれ』... 『...さてまあやしや。わが世とともに恐ろしと思ひし事の報なめり。この世にて、かく思ひかけぬ事にむかはりぬれば、後の世の罪もすこし軽みなんや』)

(四, 『柏木』, pp.282, 283, 289)

『若菜下』의 ‘겨울’, ‘후세에 성불의 방해가 된다면 그 죄는 아주 두려울 것입니다(後の世の御道の妨げならむも、罪いと恐ろしからむ)’(四, p.261)라는 光源氏の 훈계를 들은 女三宮는 光源氏が 자신의 죄를 알고 있는 것을 느끼며 光源氏를 두려워하게 되어, 柏木에게 편지도 마음대로 못쓰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女三宮의 모습을 『柏木』의 ‘봄’에서는 女三宮의 나약한 성격에 기인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女三宮의 원래의 성격이 나약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柏木 또한 자신의 죄로 인해 승려(聖)가 陀羅尼를 소리 높여 읽는 소리조차도 두려워하는 나약함을 보인다. 女三宮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若菜下』의 봄에 ‘光源氏를 보니 너무 두렵고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이런 마음을 가져선 안 되지… 게다가 엄청난 일을”’(大殿を見たてまつるに気恐ろしくまばゆく『かかる心はあるべきものか。…ましておほけなきこと』)(四, p.147)하고 光源氏를 두려워하던 柏木는 女三宮의 고양이로 대신 위안을 삼고 있었는데, 6년이 지나 女三宮을 만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柏木는 光源氏が 사실을 알고 있음을 눈치 챈다. 柏木에게는 두려워하고 창피해하던 바로 그 일이 일어난 셈이다. 남이 읽는 藥師經의 俱毗羅 대장의 이야기를 자기 목을 조르라는 소리로 잘못 듣고 죽어버렸다는 藤原保忠<sup>7)</sup>의 이야기를 柏木의 죽음에 연결시키는 복선이 지적되기도 하지만, 두렵고 창피한 柏木는 스스로 견디기 힘든 두려움에 휩싸이며, 결국 이 ‘봄’에 나약한 柏木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이미 女三宮의 잘못에 집착할 수도 없는 光源氏は ‘평생 두렵다고 생각한 일의 응보를 만나 후세의 죄도 조금은 가벼워졌을 것’이라고 합리화하며, 평생 두렵다고 생각했었던 일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그러나 이 ‘봄’에는 光源氏が 평생 두려워했던 ‘사실이 알려지는 두려움’의 말로가 女三宮의 출가와 柏木의 죽음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光源氏が 자신들의 비밀을 아는 것을 알고 이렇게 출가와 죽음으로 이어진 女三宮과 柏木의 ‘두려움’이 시작된 『若菜下』의 ‘여름’에 光源氏は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을 아버지 桐壺帝의 마음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若紫』 『紅葉賀』 『若菜下』로 이어지는 『源氏物語』의 ‘여름’은 光源氏와 藤壺가

7) 원문 四, 『柏木』, p.284의 주31) 참조.

‘두려움’에 떠는 계절이며, 사실을 알게 된 冷泉帝로 인해 光源氏가 다시 한 번 두려움을 자각하게 되는 계절이고, 女三宮와 柏木の 두려움을 통해 光源氏가 자신의 두려움을 직시하면서 자기 자신의 반성을 이끌어내는 계절이 되는 것이다.

‘여름 쫄, 연꽃이 한창일 무렵, 출가한 女三宮의 持仏 개안 공양을 하신다(夏ごろ、蓮の花の盛りに、入道の姫宮の御持仏どもあらはしたまへる供養せさせたまふ)’(四, p.361)로 시작되는 『鈴虫』에서는 출가한 女三宮를 위해 光源氏와 紫上が 女三宮의 持仏 개안 공양을 도와주고<sup>8)</sup>, 光源氏의 女三宮에 대한 생활의 배려 등이 이어진다. ‘여름의 연꽃이 한창일 무렵’이라고 하는 아미타여래의 정토를 연상시키는 이 계절<sup>9)</sup>은 자기반성을 하는 光源氏가 도달한 경지를 시사하고 있다. 말하자면 ‘사랑의 깊은 산’으로 인해 진땀나던 ‘두려운’ 여름은 연꽃 피는 ‘아미타여래의 정토’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마치 연결 고리가 이어지듯 이어져서 완성된 것이 된다. 결과적으로 어머니가 죽은 ‘여름’에 光源氏는 이렇게 ‘아미타여래의 정토’로 인도되고 있는 것이다.

### 3. 자손의 번영과 우거진 녹음

『桐壺』의 ‘여름’이 桐壺更衣의 죽음으로 인해 光源氏에게 운명적으로 슬픈 계절이 되는 데 비해, 『明石』의 ‘여름’에는 죽은 아버지 桐壺院의 꿈의 계시를 따른 光源氏가 明石入道の 딸 明石君에게 구혼하게 되는 운명적인 장면<sup>10)</sup>이

8) 藤井貞和는 개안 공양의 화려함은 ‘光源氏와 女三宮 사이의 마음의 격절이 참을 수 없을 만큼 깊다’는 것이 나타나있는 것이라고 지적한다.((1980) 『源氏物語の始原と現在』、冬樹社、p.163.)

9) 원문 四, 『鈴虫』, p.361의 주1) 참조.

10) 光源氏가 자기를 데리러 온 明石入道를 따라 明石로 간 것은 ‘봄’의 光源氏의 꿈에 죽은 아버지 桐壺院이 나타나 ‘(해상신인) 住吉신사의 신이 인도하는 대로 빨리 배를 타고 이곳을 떠나라(住吉の神の導きたまふままに、はや舟出してこの浦を去りぬ)’(二, 『明石』p.219)라고 한 말이 있었기 때문이다. 入道 또한 꿈에 ‘특이한 모습으로 알리는 사람이 있어서(さまことなる物の告げ知らすことはべりしかば)’(二, p.221)따라 왔다면서 ‘정말로 신의 인도가 틀림없다(まことに神のしるべ違はずなん)’(二, p.222)고 하는 것이다. 꿈의 계시대로 入道를 따라 明石로 간 光源氏는 그곳에서 入道の 마음을 받아들여 그의 딸인 明石君에게 구혼하게 된다. 光

묘사된다. 桐壺更衣가 죽은 것은 후견인도 없는 열악한 형편으로 궁중생활을 한 것에 근본 원인이 있다. 그리고 更衣가 열악한 궁중생활을 강행한 이유로는 ‘이 사람이 입궐하는 본뜻을 틀림없이 이루어 드려라(この人の宮仕の本意、かならず遂げさせたまつれ)’(一, p.106)라고 하는 아버지 大納言의 유언이 있었기 때문에 밝혀지고 있다. 그러한 집안의 영화회복을 바라는 大納言의 유언은 ‘도시의 권문과 의 결혼을 바라는 明石入道の 삶과 같은 맥락<sup>11)</sup>’인 것이다. 『明石』의 ‘여름’, 桐壺更衣와 같은 혈통<sup>12)</sup>의 明石入道가 집안의 영화회복을 바라며 光源氏를 사위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4월이 되었다. 갈아입을 의복과 칸막이의 천 등을 (여름 것으로) 멋있게 조달한다. 모두 신경을 쓰는 것을 딱하게도 미안하게도 생각하지만, 자부심이 강한 (入道の) 인품을 생각해서 하는 대로 놔두었다. …멀리까지 탁 트인 바닷가여서 봄가을의 꽃이나 단풍이 한창일 때보다도 그저 어딘지 자연 그대로 우거진 그늘이 더 멋있어서…소리도 들도 없이 아름답게 거문고 등을 아주 매력적으로 켜는 솜씨에 마음이 끌려서…태어났을 때부터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도읍의 고귀한 분에게 시집보내고자 하는 깊은 결심이 있습니다…먼저 가까운지 알 수도 없는 하늘을 쓸쓸히 바라보며 入道에게 들은 집의 아가씨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四月になりぬ。更衣の御装束、御帳の帷子など、よしあるさまにしづ。よろづに仕うまつり営むを、いとほしうすずろなりと思せど、人さまのあくまで思ひあがりたるさまのあてなるに、思しゆるして見たまふ。…はるばると物のとどこほりなき海づらなるに、なかなか、春秋の花紅葉の盛りなるよりは、ただそこはかとなう茂れる蔭どもなまめかしきに…音もいと二なう出づる琴どもを、いとなつかしう弾き鳴らしたるも、御心とまりて、…生まれし時より頼むところなんはべる。いかにして都の貴き人に奉らんと思ふ心深きにより…をちこちも知らぬ雲るにながめわびかすめし宿の梢をぞとふ)

(二, 『明石』 pp.229, 231, 235, 238)

源氏와 明石君의 결혼에는 이렇게 桐壺院에 의해 만나게 되는 운명이 있다.

- 11) 日向一雅는 大納言의 유언은 ‘都の権門との結婚を祈り続けた明石入道の生き方と軌を一にしている’라며 ‘明石入道과 桐壺更衣가 사촌이라는 설정으로 光源氏에게도 똑같이 집의 비운을 짊어지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한다.((1989)『源氏物語の王権と流離』、新典社、p.165)
- 12) 明石入道가 죽은 光源氏의 어머니에 대해서 『故母御息所は、おのがをちにものしたまひし按察大納言のむすめなり』처럼, 자기의 사촌이라고 말을 하며, 『女は心高くつかふべきものなり』처럼, 여자는 생각을 높이 가져야한다면서 어려운 형편에서도 입궐하여 光源氏를 낳은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다. (원문二、『須磨』、p.202)

明石入道を 따라 明石에 도착한 光源氏는 초여름인 4월, 여름 색으로 바뀌는 생활과 나무가 우거진 그늘이 멋있는 여름의 자연 속에서 明石入道の 거문고 등을 켜는 아름다운 소리에 마음이 끌린다. 光源氏는 ‘태어났을 때부터 기대하는 것’이 있었고, ‘도읍의 고귀한 분에게 시집보내고자 하는 깊은 결심’이 있었다고 하는 明石入道の 말에 이끌려 그의 딸에 대한 기대를 듣게 된다. 그리고 光源氏는 딸인 明石君에게 ‘먼지 가까운지 알 수도 없는 하늘을 쓸쓸히 바라보며 入道에게 들은 아가씨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라고 하는 和歌의 편지로 소식을 보내며 구혼하게 된다. 다음해의 여름, ‘6월쯤부터는 힘든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괴로워했다(六月ばかりより心くるしきけしきありて悩みけり)’(二, 『明石』 p.252)처럼, 6월부터는 明石君의 회임 소식이 있었던 것으로 묘사된다. 이렇게 『明石』의 ‘여름’에는 明石入道 집안의 영화회복에 대한 염원을 시작으로 光源氏의 明石君에 대한 구혼과 明石君의 회임 소식 등이 가을에 있을 光源氏의 歸京을 앞두고 묘사되고 있다.

『滯標』 ‘여름’에는 5월 5일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 날은 봄에 태어난 明石姫君의 탄생 50일을 기념하여 光源氏가 축하의 사자를 보내고 京에 와서 살 것을 권하는 날이다.

5월5일이 50일째가 될 것이라고 남모르게 세어보고는 (姫君를) 보고 싶고 안타깝게 생각하신다. …나(光源氏)의 숙제도 (姫君의) 탄생을 위해 어려움도 있었던 것이다…역시 이대로는 지낼 수 없을 테니 상경하도록 결심하시오…(明石君도) 정말 이렇게 생각해 줄 만큼의 姫君를 낳은 나도 아주 대단하다고 점점 생각이 들었다(五月五日にぞ、五十日にはあたるらむと、人知れず数へたまひて、ゆかしうあはれに思しやる。…わが御宿世も、この御事につけてぞかたほなりけり、…なほかくてはえ過ぐすまじきを、思ひ立ちたまひね。…げにかく思し出づばかりのなごりとどめたる身も、いとたけくやうやう思ひなりけり。) (二, 『滯標』 p.284)

光源氏는 明石姫君의 탄생 50일을 남모르게 세어보며 光源氏는 지난날의 모든 어려움도 오늘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할 만큼 姫君의 탄생을 기뻐한다. 자신의 신분을 의식하며 평생을 겸손하게 살아온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는 明石君 또한 光源氏의 축하 선물과 편지 등을 받고는 ‘이렇게 생각해 줄 만큼의 姫

君를 낳은 나도 아주 대단하다'고 뿌듯함을 느끼게 된다.

『藤裏葉』의 '여름'인 4월 20일의 明石姫君의 입궐에는 紫上도 의견을 제시하여 明石君가 姫君의 후견인으로 정해진다. 『松風』의 '가을'에는 明石君가 大堰로 옮겨오고, 『薄雲』의 '겨울'에 姫君를 紫上에게 보낸 8년 후의 이 '여름', 明石君는 입궐하는 姫君의 후견인으로 정해져서 姫君와 재회하게 되는 것이다. '오랫동안 여러 가지로 탄식하고 침울해 하며 가지가지로 괴로운 몸이라고 괴로워하던 목숨도 이제는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개운해져서 (年ごろよろづに嘆き沈み、さまざまうき身と思ひ届しつる命も延べまほしう、はればれしきにつけて)'(三, 『藤裏葉』 p.443)처럼, 姫君를 紫上에게 보내고 괴로워하던 明石君도 잘 자라서 입궐하게 된 姫君를 보면서 그 동안의 고생한 마음이 풀어지게 된다.

『若菜上』의 '여름'에는 明石女御가 桐壺御方라고 불리며 '여름쯤에 기분이 좋지 않은데, …회임하신 모양이다. …겨우겨우 친정으로 가셨다.(夏ごろ悩ましくしたまふを…めづらしきさまの御心地にぞありける。…からうじてまかてたまへり。)'(四, p.79)처럼, 회임하여<sup>13)</sup> 六条院으로 쉬러오는 모습이 묘사된다. 그리고 明石君는 '지금은 女御를 따라서 궁중 출입을 하시니 모두가 바라는 숙세이다(今は御身に添ひて出で入りたまふも、あらまほしき御宿世なりかし)'(四, p.79)처럼, 明石女御가 회임한 이 여름, 明石君의 숙세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묘사되고 있다. 게다가 明石女御는 그 옛날 光源氏의 어머니인 桐壺更衣가 살던 桐壺와 같은 이름의 집에 살면서 桐壺御方라고도 불리는 등, 이 '여름'에는 桐壺更衣 집안의 영화회복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시사되고 있는 것이다.

『若菜下』의 '봄'에는 冷泉帝의 퇴위와 東宮의 즉위, 明石女御의 첫째 황자가 東宮이 되는 등의 明石女御 일가의 숙원 성취가 이루어지면서 光源氏로 연결되는 桐壺更衣 집안의 숙원 또한 이루어진 것이 光源氏를 통해서도 암시되고 있다. 그리고 女樂을 마친 光源氏는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식물과 꽃으로 비유

13) 光源氏의 어머니인 桐壺更衣가 사망한 여름과 같은 계절인 '여름'에 明石女御가 궁중에서 桐壺更衣가 살던 방과 같은 이름의 방을 쓰고 있어 桐壺御方라고 불리며, 女御의 회임 사실을 알리는 것은 明石 일가의 숙원이 桐壺更衣 일가의 숙원과 같은 맥락에서 연결되고 있는 것을 시사하는 측면이 있다.



하게 되는데, 女三宮을 파란 버드나무(靑柳)로, 紫上을 벚꽃(櫻)이라고 하는 ‘봄’의 景物에 비유하면서, 明石女御와 明石君에 대해서는 ‘여름’과 관련지어 비유한다.

아름답게 만발한 등나무 꽃이 여름에도 피어서 비길 꽃조차 없이 아침 햇볕을 받고 있는 느낌이 든다. …오월을 기다려서 피는 감귤 꽃의 꽃도 열매도 함께 꺾었을 때의 향기를 느끼게 한다。(よく咲きこぼれたる藤の花の、夏にかかりてかたはらに並ぶ花なき朝ぼらけの心地ぞしたまへる。…五月まつ花橘、花も実も具して押し折れるかをりおぼゆ。)

(四, 『若菜下』 p.183, 185)

光源氏は 明石女御를 여름까지 피어 비길 꽃조차 없이 아름답게 만발한 등나무 꽃으로<sup>14)</sup> 비유하고, 明石君를 오월에 피는 감귤 꽃의 꽃도 열매도 함께 꺾었을 때의 진한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다. 六条院의 ‘겨울’의 안주인으로 살아 온 明石君이지만, 明石君는 ‘겨울’을 초월하여 光源氏가 明石에 처음 도착한 4월의 ‘나무가 우거져 그늘이 멋있는’ 여름의 자연도 지나 이제는 꽃도 열매도 맺은 당당한 여름의 꽃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御法』의 紫上가 병약해진 ‘여름’에는 ‘明石君도 明石中宮과 함께 二条院으로 건너와서 서로 마음 깊이 조용하게 이야기를 나누신다(明石の御方も渡りたまひて、心深げに静まりたる御物語ども聞こえかはしたまふ)’(四, p.487)처럼, 이제는 많은 皇子 皇女の 어머니이며 中宮이 된 딸과 함께 明石君는 二条院으로 紫上를 찾아가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죽어가는 紫上 앞에 자손의 번영을 이룬 明石君가 六条院의 일원이며 中宮의 어머니로서 안정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이다.

光源氏의 皇子인 冷泉帝가 탄생 후 처음으로 입궐한 계절이 ‘여름’이며, 친아버지가 光源氏인 것을 알게 되는 것도 ‘여름’이다. 아들인 夕霧 또한 六条院 ‘여름’의 안주인인 花散里를 후견인으로 하고 있으며, ‘여름’에 雲居雁와 결혼하는

14) 上坂信男는 明石女御가 등나무 꽃으로 비유되는 것에 대해 ‘桐壺更衣에서 藤壺로, 藤壺에서 紫上로, 그리고 紫上에서 明石姫君로, 藤의 인연 紫의 인연이 전해져서, 이 姫君야말로 六条院의 直系 여주인공에 어울리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름까지 피어’ 있으면서 ‘아름답게 만발’하고 있다는 점에 더 주목하고 싶다. ((1977) 『源氏物語—その心象序説—』、笠間書院、p.221.)

등, '여름'에는 光源氏의 자손들의 중요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明石」, 「滂標」, 「藤裏葉」, 「若菜上」, 「御法」의 '여름'으로 이어지는 明石君 집안의 숙원 성취 이야기는 桐壺更衣 집안의 숙원과도 맥을 같이 하면서 녹음이 우거지듯 자손이 번영하기를 기대하던 明石入道の 염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진 明石入道の 염원을 통해 「桐壺」의 '여름'에 담겨진 죽은 어머니 桐壺更衣의 光源氏에게 품은 의지가 이루어진 것을 또한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 4. 사랑의 슬픔과 쏟아지는 비

『源氏物語』의 '여름'은 紫上<sup>15)</sup>와도 관계가 깊다. 紫上和 관련된 『源氏物語』의 '여름'은 「葵」, 「藤裏葉」, 「若菜上」, 「若菜下」, 「鈴虫」, 「御法」, 「幻」의 7곳이 된다. 그 중 『源氏物語』에 4번 나오는 여름 축제인 葵祭가 紫上和 연관되어 있는 것도 '여름'과 紫上和의 특별한 관계를 더욱 주목하게 만든다.

우선 「葵」의 '여름'에 紫上은 光源氏와 함께 수레를 타고 葵祭를 구경 간다. 수레에 발을 내려 紫上的의 얼굴이 공개되지는 않지만, 光源氏의 二条院의 서쪽 건물에 살고 있다는 소문의 여성의 존재가 세상에 공개되는 셈이 된다. 葵祭 전에 하는 御禊의 행사에 참가한 光源氏의 모습을 보려다가 葵上和 六条御息所는 이미 수레 사건이 일어나 있는 상황으로, 이것이 계기가 되어 '신분 높은 두 명의 부인은 "잘못 되게"<sup>16)</sup> 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부인을 잃은 光源氏가 결국 紫上和 결혼할 것이라는 것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藤裏葉」의 '여름'에는 葵祭를 구경 온 紫上和 여관들의 모습이 '저것이 紫上

15) 拙稿는 紫上가 계절의 '봄'을 내면화하여 '봄' 그 자체와 같은 인간으로 승화되는 '봄의 여인'임을 밝힌 바 있다.((2007,11) 「『源氏物語』의 紫上和 봄의 이미지」 『日語日文学研究』 韓國日語日文学会)

16) 後藤祥子は 「身分高い二人の妻は "差し違える" ことになる」라고 표현하고 있다.((1983) 「哀傷の四季」 『講座源氏物語の世界』 第七集, p.205) 中井和子は '葵卷에서 葵祭는 葵上・六条御息所라고 하는 두 명의 주요등장인물을 物語 무대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한 계기를 만드는 장면으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1981) 「葵祭」 『講座源氏物語の世界』 第三集, p.43)

라고 멀리서도 알 수 있을 만큼 굉장한 위세이다(かれはそれと、遠目よりおどろおどろしき御勢なり。)'(三, p.438)처럼, 光源氏 of 부인으로서 당당한 紫上의 위세가 멀리까지 공개되고 있다. 한편 明石姫君의 입궐 의식을 마쳐주고 퇴궐하는 紫上의 모습이 '퇴궐하시는 의식이 아주 웅장하고 가마등이 허락되어 마치 女御의 모습과 다를 게 없다(出でたまふ儀式のいとことによそほしく、御輦車などゆるされたまひて、女御の御ありさまに異ならぬ)'(三, p.443)처럼, 가까이서 보아도 姫君의 어머니인 明石君가 자신의 신분을 의식할 정도로 높은 품격<sup>17)</sup>으로 묘사되고 있다. 멀리서도 가까이서도 光源氏의 부인으로서 높은 품격을 갖춘 紫上가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紫上의 높은 품격은 『若菜上』의 '여름'에도 이어서 묘사되고 있다. 明石女御가 회임하여 六条院으로 친정 나들이를 나오자, 紫上은 明石女御를 대면하면서 처음으로 女三宮를 대면하기로 한다. 女三宮를 대면하려고 하는 紫上의 모습은 光源氏가 보기에 '비교할 수 없는 사람(たぐひなくこそは)'(四, p.82)처럼 훌륭하게 보이고, 紫上을 만난 女三宮도 또한 '어린 성품에 따르게 되었다(幼き御心地にはうちとけたまへり)'(四, p.84)처럼, 紫上은 누가 봐도 흠이 없는 훌륭한 사람인 것이다.

『若菜下』의 '여름'에는 3월부터 병이 난 紫上가 二条院으로 옮겨 간 후의 일이 葬祭를 계기로 전개되고 있다. 먼저 六条院에서는 '葬祭를 앞둔 재계가 내일로(御禊、明日とて)'(四, p.214) 다가와 여관들이 구경 갈 준비로 바빠서 女三宮 근처가 조용해 진 틈을 타 柏木가 숨어드는 사건이 일어난다. 柏木로 인해 고뇌하게 된 女三宮를 돌보기 위해, 二条院에 가 있던 光源氏는 진실을 모른 채 다시 六条院으로 간다. 그러는 사이 葬祭의 날에는 紫上가 '숨이 끊어졌습니다(絶え入りたまひぬ)'(四, p.224)라는 연락을 받고 光源氏는 허둥지둥 다시 二条院으로 달려간다. 二条院으로 간 光源氏는 열심히 加持祈禱를 하여 六条御息所の 死靈이 출현하는 속에서 겨우겨우 紫上을 옮겨 낸다. 光源氏는 二条院과 六条院을 허둥지둥 오가는 속에서도 숨이 끊어진 紫上를 소생시키기에 이른다. 그리고 소생한 紫上은 출가를 원하지만 光源氏는 출가를 허락하지 않는 대

17) 紫上의 표면상의 품격이 높아지는 반면, 明石姫君의 입궐을 계기로 紫上의 내면세계는 친자식이 없는 허전함이 짝트기 시작한다.

신 五戒 만이라도 받게 해 준다. 5월의 더위에 건강이 쇠약해진 紫上은 光源氏의 슬퍼하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는데, 내가 허망하게 되는 것을 보시게 하는 것은 정말로 마음이 아픈 일이기예(かく思しまどふめるに、むなしく見なされたてまつらむがいと思ひ隈なかるべければ)’(四, p.233)라고 생각하며 탕약 등을 먹어, 6월에는 소강상태에 이르게 된다. 마음이 약해진 紫上에게 光源氏는 연꽃의 이슬을 보며 저승에서의 인연까지도 약속하는 등, 『若菜下』의 ‘여름’에는 二条院과 六条院을 허둥지둥 오가는 光源氏가, 결국에는 紫上과의 인연을 재확인하게 되는 운명이 나타나 있는 것이다.

연꽃의 이슬이 머물러 있는 동안은 살아 있을까요 잠시 머물듯 짧은 생명인 것을(消えとまるほどやは経べきたまさかに蓮のつゆのかかるばかりを)

약속하지요 이승이 아닌 저승에서도 연꽃잎의 이슬처럼 일련탄생 한다고(契りおかむこの世ならでも蓮葉に玉るる露のこころへだつな)(四, p.236)

위 문장처럼 『若菜下』의 ‘여름’에 紫上은 잠시 머무는 연꽃의 이슬처럼 자신의 생명이 곧 끝난다고 느끼고 있다. 그런 紫上에게 光源氏는 저승에서의 인연까지도 약속한다. 그리고 아직도 고뇌하는 女三宮를 방치할 수도 없어 六条院으로 찾아간 光源氏는 그곳에서 柏木の 편지를 발견하고 女三宮와 柏木の 관계를 알게 된다. 葵祭를 배경으로 이러한 六条院의 ‘지옥<sup>18)</sup>’과 二条院의 죽음에서 소생하는 紫上가 묘사되면서, 紫上은 光源氏의 진심을 보게 되고 紫上은 자신보다도 光源氏의 마음을 더 생각하게 된다.

紫上の 光源氏를 위하는 모습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鈴虫』<sup>19)</sup>로 이어지고 있다. 紫上은 光源氏를 도와 출가한 女三宮의 持仏 개안 공양의 준비를 도와주는 것이다. 紫上은 ‘후세의 죄도 조금은 가벼워졌을까(後の世の罪もすこし軽みなんや)’(四, 『柏木』 p.289)라고 생각하며 女三宮의 잘못을 탓하는 마음에서도 자신의 두려움에서도 벗어나고자 하는 光源氏를 도와 女三宮의 持仏 개

18) 주16)과 같음, p.206 참조.

19) 増田繁夫는 ‘이卷에는 특별한 사건다운 것이 하나도 묘사 되어있지 않다. 늙은 光源氏는 이제 새로운 物語의 세계를 개척해 갈 힘을 잃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卷은 ‘두려움’의 세계를 살아 온 光源氏가 女三宮를 돕는 것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정리하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1982) 『鈴虫卷の世界』 『講座源氏物語の世界』 第七集, p.89)

안 공양을 화려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御法』의 ‘여름’에는 이미 봄에 二条院에서 法華經 千部를 공양한 紫上가 ‘여름이 되어서는 더위에 조차 정신을 잃을 듯한 일이 더욱 더 많아졌다(夏になりては、例の暑さにさへ、いとど消え入りたまひぬべきをり多かり)’(四, p.486)처럼, 여름의 더위 속에서 쇠약해져 가는 모습이 묘사된다. 결국 紫上은 가을이 되어 좀 시원해지자 ‘정말 사라져 가는 이슬처럼 마지막으로 보이더니…새벽녘에 완전히 숨을 거두셨다(まことに消えゆく露の心地して限りに見えたまへば、…明けはつるほどに消えてたまひぬ。)’(四, p.492)처럼 새벽녘의 이슬이 사라지듯 세상을 떠나 슬픈 가을의 주인공이 되지만, 이 ‘여름’에 쇠약해져가는 紫上은 병문안 온 明石中宮을 대면하고 二条院을 匂宮에게 물려주며 유언하는 등, 죽음에 이르는 길을 이미 가고 있는 것이다.

『幻』에는 紫上가 죽은 후의 光源氏 52세의 일 년이 사계절을 통해서 묘사된다. 그 중 ‘여름’은 4월 1일에 花散里가 보내 온 갈아입을 여름옷을 보고 光源氏가 ‘매미 날개처럼 얇은 옷으로 갈아입는 오늘부터는 매미의 목숨처럼 덧없는 세상이 더욱더 슬퍼집니다(羽衣のうすきにかはる今日よりはうつせみの世ぞいと悲しき)’(四, p.523)라며, 덧없는 세상의 슬픔을 읊는 것으로 시작된다. 紫上의 좋은 친구로 살고, 재봉의 솜씨가 뛰어난 六条院 ‘여름’의 안주인인 花散里가 보내 온 여름옷을 보아도 光源氏는 紫上가 없는 세상의 슬픔만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葵祭 날에는 ‘(葵祭의 중심인) 賀茂神社의 정경 등을 생각한다(御社のありさまなど思しやる)’(四, p.523)처럼, 光源氏는 葵祭를 구경 가지 않아도 葵祭의 정경이 생각나는 것이다.

『葵』, 『藤裏葉』, 『若菜下』의 葵祭 날은 光源氏와 紫上에게 있어서 인생의 궁극적인 일들이 일어난 날들이다. 그리고 紫上가 없는 지금 光源氏는 葵祭의 정경을 생각하며 紫上을 생각하는 것이다. 5월의 비 내리는 밤을 배경으로, 光源氏가 夕霧를 상대로 紫上을 그리워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다.

5월의 장마 비가 내릴 때는 그저 생각에 잠겨 지낼 수밖에 할 일이 없어 쓸쓸한데, 드물게 구름이 걷혀서 십 여일의 달이 밝게 빛나는 날, 夕霧가 光源氏 앞에 마주앉았다. 꿀꽃이 달빛에 선명하게 보이고 향기도 불어오는 바람에 그리움을 가져

오자, ‘오랜 세월 귀에 익은 소리’가 나면 좋을 텐데, 라며 (두견새가) 기다려지는데, 갑자기 하늘에 나타나는 구름의 모습이 안타깝다. 쏟아져 내리는 비와 함께 갑자기 부는 바람에 등불도 흔들려 꺼질 듯하여, 하늘이 어두워지는 느낌이 든다. ‘창을 두드리는 소리’ 등의 신기하지도 않은 옛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도, 이럴 때에 어울리는 것일까, 여인에게 들려주고 싶은 목소리이다.(五月雨はいとどながめ暮らしたまふより外の事なくさうごうしきに、十余日の月はなやかにさし出でたる雲間のめづらしきに、大将の君御前にさぶらひたまふ。花橋の月影にときはやかに見ゆるかをりも、追風なつかしければ、「千代をならせる声」もせなん、と待たるるほどに、にはかに立ち出づるむら雲のけしきいとあやくにて、おどろおどろしう降り来る雨に添ひて、さと吹く風に灯籠も吹きまどはして、空暗き心地するに、「窓をうつ声」など、めづらしからぬ古言を、うち誦じたまへるも、をりからにや、妹が垣根におとなはせまほしき御声なり) (四, 『幻』, p.525)

위의 문장은 『幻』의 ‘여름 밤’의 모습이다. 5월의 장마 비가 잠시 그친 사이에 光源氏は 찾아 온 夕霧와 마주 앉는다. 달이 비추고 바람이 불어 꿀꽃 향기가 그리움을 가져오자 그리움의 두견새<sup>20)</sup>를 기다리듯 光源氏は 고인을 그리워한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비가 쏟아지는<sup>21)</sup> 모습은 죽은 紫上을 그리워하며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는 光源氏의 마음과도 같다. 여름의 풍물인 꿀꽃도 두견새<sup>22)</sup>도 이제는 紫上에 대한 그리움만을 의미한다. 紫上에 대한 그리움은 갑자기 부는 바람과도 같다. 잠시 그친 비도 눈물이 쏟아지듯 다시 쏟아진다. 이렇게 『幻』의 여름밤에는 紫上을 그리워하는 光源氏가 비가 쏟아지듯 마음속의 눈물을 쏟는 것이다.

아주 더운 계절, 시원한 방에서 생각에 잠겨 연못의 연꽃을 보고 있노라니 ‘(슬픔이 많은 사람에게는) 얼마나 (눈물이) 많겠는가’ 등이 먼저 떠올라 정신이 나간

20) 高橋亨은 ‘冥界의 새라고 하고 두견새를 내세워서 옛 사람인 紫上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987)『物語文芸の表現史』、名古屋大学出版会、p.205)

21) 鈴木日出男은 ‘사람들은 옛 부터 비를 天空에 있는 神慮가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하여 초월적인 힘을 느껴왔다. 바람이나 눈과 함께 하늘로 부터의 소식이라고 생각해 왔다’라고 비의 의미를 지적하고 있다. ((1989)『源氏物語歳時記』、筑摩書房、p.116.)

22) 『古今集』‘여름’에는 34首의 和歌가 읊어지고 있는데, 그 중 압도적으로 많은 27首가 ‘두견새를, 1首가 ‘꿀꽃’을 읊고 있다. 참고로 그 외에는 ‘늦게 핀 등나무 꽃,’ ‘늦게 핀 벚꽃,’ ‘연꽃,’ ‘여름 달,’ ‘페랭이꽃,’ ‘6월말일’이 1首씩 읊어지고 있다.

듯이 멍하니 앉아있는 사이에 날이 저물었다. 쓰르라미 소리가 한창 들리고 뜰 앞의 패랭이꽃이 석양에 빛나는 것을 혼자서 보는 것은 정말 보람 없는 일이다.

할 일없이 심심하여 울고 지내는 여름날을 나를 핑계 삼아 우는 벌레 소리구나 반딧불이 아주 많이 날자 ‘밤의 궁전에 반딧불 날아’ 라며, 언제나처럼 옛 노래도 (장훈가의) 이런 종류만 입에 담게 되겠다.

밤이 온 것을 아는 반딧불을 보아도 슬픈 것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 죽은 자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서이다.

いと暑きころ、涼しき方にてながめたまふに、池の蓮の盛りなるを見たまふに、  
『いかに多かる』などまつ思し出でらるるに、ほれほれしくて、つくづくとおはする  
ほどに、日も暮れにけり。蝸の声はなやかなるに、御前の撫子の夕映えを独りのみ  
見たまふは、げにぞかひなかりける。

つれづれとわか泣きくらす夏の日をかごとがましき虫の声かな  
螢のいとどう飛びかふも、『夕殿に螢飛んで』と、例の、古言もかかる筋にのみ口  
馴れたまへり。

夜を知るほたるを見てもかなしきは時ぞともなき思ひなりけり (四, 『幻』 p.528)

紫上를 그리워하는 光源氏は 연꽃 위의 물방울을 보아도 ‘많은 눈물’로 읊은 옛 시가 떠오르고, 반딧불이 나는 것을 보아도 ‘장훈가’의 한 구절이 생각난다. 紫上를 그리워하는 光源氏의 ‘산문의 차원을 초월한 언어의 차원이 和歌를 요청<sup>23)</sup>’하고 있다. 이렇게 光源氏は 紫上를 그리워하며 여름을 보낸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죽은 자에 대한 그리움’으로 紫上만을 생각하는 光源氏의 모습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幻』는 紫上가 죽은 후의 光源氏의 일 년이 묘사되는 卷이어서 光源氏は 紫上를 그리워하며 이렇게 눈물로 가을 겨울을 보내고, 연말에는 紫上와의 편지를 눈물로 불태운다. 그리고는 ‘생각에 잠겨 지나가는 세월도 모르는 사이 일 년도 내 인생도 오늘로 다 하노라(もの思ふと過ぐる月日も知らぬ間に年もわが世もけふや尽きぬる)’(四, p.523)라며, 光源氏가 자신의 삶을 和歌로 정리하기에 이른다.

불어오는 꿀꽃 향기로 그리움의 두견새를 기다리고, 그 마음에 장마 비가 쏟아지듯 그리움의 눈물이 쏟아지는 光源氏의 紫上를 그리워하는 모습에서 紫上

23) 藤井氏は『散文の次元を超えた言語の次元が和歌を要請している』라고 지적하고 있다. (주8) 전계논문, p.179)

가 봄의 안주인으로 끝나지 않고 光源氏의 인생 그 자체의 의미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여름’에 죽은 어머니를 기리는 마음에 기인될 수도 있는 것이다. 桐壺更衣를 닮은 藤壺, 桐壺更衣와 같은 혈통인 明石君, 藤壺를 닮은 같은 혈통의 紫上은 이렇게 ‘여름’이라는 계절을 통해서 光源氏의 어머니인 桐壺更衣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어머니가 죽은 ‘여름’을 이제껏 물어보지 못한 光源氏<sup>24)</sup>가 이 ‘여름’ 쏟아지는 비처럼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 5. 결론

『源氏物語』의 ‘여름’은 光源氏의 저택 六条院 ‘여름’의 안주인인 花散里가 대표한다고 보통 생각한다. 그러나 花散里에 관한 과제는 다음으로 미루고, 본 논문에서는 光源氏의 어머니인 桐壺更衣가 죽은 ‘여름’에 주목하여, 이후 ‘여름’에 전개된 주요사건들을 중점적으로 고찰해보았다. 그 결과, 어머니 桐壺更衣를 비롯하여 桐壺更衣를 닮은 藤壺, 桐壺更衣와 같은 혈통인 明石君, 그리고 藤壺를 닮고 혈통도 같은 紫上 등 光源氏와 연관된 주요인물들이 여름을 매개로 한 하나의 의미연관 속에 있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그 요점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若紫」「紅葉賀」「若菜下」「鈴虫」로 이어지는 ‘여름’은, 光源氏가 桐壺更衣를 닮은 藤壺를 사랑하게 되면서 시작된다. 桐壺帝를 배신한 光源氏와 藤壺는 두려움에 떨게 되고, 사실을 알게 된 冷泉帝로 인해 光源氏는 다시 한 번 두려움을 자각하게 되며, 女三宮와 柏木の 두려움을 통해 光源氏는 자신의 두려움을 직시하면서 자기 자신의 반성을 이끌어내기에 이른다. 그리고 결국에는 女三宮의 持仏 개안 공양과 생활을 도와주면서 연꽃 피는 ‘아미타여래의 정토’로 인도된다. 이 일들이 모두 ‘여름’이라는 계절로 연결되고 있다.

「明石」「滯標」「藤裏葉」「若菜上」「御法」로 이어지는 ‘여름’은, 桐壺更衣의

24) 光源氏는 세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무 어려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다(何ごとかあらむとも思したらず)’라고 원문에 나와 있다. (一, 『桐壺』, p.100)



사촌이며 집안의 영화회복이라는 更衣와 같은 숙원을 지니는 明石入道の 딸 明石君에게 光源氏가 구혼하면서 운명이 시작된다. 明石君의 임신과 태어난 姫君의 입궐, 明石女御가 桐壺御方라고 불리며 회임하여 친정인 六条院에 와서 쉬는 모습 등으로 明石 일가의 숙원은 물론 桐壺更衣 일가의 숙원 또한 ‘여름’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 시사된다. 많은 皇子 皇女の 어머니인 明石中宮의 모습은 녹음이 우거지듯 자손의 번영을 기대하던 明石入道の 염원이 이루어진 것이며 『桐壺』의 ‘여름’에 죽은 어머니인 桐壺更衣의 의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紫上の 인생이 묘사되는 『葵』 『藤裏葉』 『若菜上』 『若菜下』 『鈴虫』 『御法』 『幻』의 ‘여름’ 중 특히 葵祭가 직접 간접으로 언급된 『葵』 『藤裏葉』 『若菜下』 『幻』의 ‘여름’은, 紫上の 인생의 궁극적인 사건들로 연결되고 있다. 『葵』에서 光源氏와 함께 수레를 타고 葵祭를 구경 간 紫上이 『藤裏葉』에서는 光源氏의 부인으로서 당당한 위세를 보이며 葵祭를 구경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若菜下』에서는 병든 紫上이 죽음에서 소생하여, 지옥을 헤매듯 괴로움을 경험하는 光源氏와 인생의 인연을 재확인한다. 이렇게 葵祭가 묘사되는 ‘여름’에는 紫上和 光源氏가 키워온 인연이 연결되고 있다. 이윽고 『幻』의 ‘여름’에 이르러 光源氏는 紫上을 그리워하며 쏟아지는 비처럼 눈물을 흘리게 된다. 어머니가 죽은 ‘여름’을 이제껏 울어보지 못한 光源氏가 紫上을 그리워하며 쏟아지는 비처럼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紫上을 그리워하며 우는 이 ‘여름’이 마치 어머니인 桐壺更衣가 죽은 ‘여름’과 연결되는 느낌을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源氏物語』의 ‘여름’은 桐壺更衣와의 인연선상에서 등장하는 藤壺, 明石君, 紫上の 삶의 궁극적인 사건들을 묘하게 서로 이어주는 연결고리처럼 작용하면서 光源氏의 어머니인 桐壺更衣가 죽은 그 ‘여름’으로 모두 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름’이라는 배경설정은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光源氏의 인생에 있어서, 특히 그 사랑의 전개에서 간과할 수 없는 하나의 문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源氏物語』~日本古典文学全集、小学館  
『古今和歌集』~日本古典文学全集、小学館  
阿部秋夫(1982,3) 『源氏物語執筆の順序』 『源氏物語(1)成立論構想論』~国文学解釈と鑑賞  
別冊、至文堂、p.165  
上坂信男(1977) 『源氏物語—その心象序説—』~笠間書院、p.221.  
後藤祥子(1983) 『哀傷の四季』 『講座源氏物語の世界』第七集、p.205  
鈴木日出男(1989) 『源氏物語歳時記』~筑摩書房、p.116  
高橋和夫(1999) 『桐壺卷の主題』 『源氏物語研究集成』第一卷、p.43  
高橋亨(1987) 『物語文芸の表現史』~名古屋大学出版会、p.205  
中井和子(1981) 『葵祭』 『講座源氏物語の世界』第三集、p.43  
日向一雅(1989) 『源氏物語の王権と流離』~新典社、p.165  
藤井貞和(1980) 『源氏物語の始原と現在』~冬樹社、p.163.  
増田繁夫(1982) 『鈴虫卷の世界』 『講座源氏物語の世界』第七集、p.89  
\_\_\_\_\_ (1999) 『光源氏の古代性と近代性』 『源氏物語研究集成』第一卷、p.328

- ❖ 투고일 : 2008. 6. 30
- ❖ 심사일 : 2008. 7. 29
- ❖ 심사완료일 : 2008. 8. 1